

2021년 9월 13일

## 지사메시지

- 오카야마현 지사 이바라기 류타입니다.
- 현민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긴급사태선언에 따라 여러 가지의  
힘겨운 요청에 대해 이해와 협력을 다 해 주신 점에  
감사드립니다.
- 9월 12일로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고, 9월 13일부터 9월 말까지  
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 적용이 결정되었습니다. 이것으로  
오카야마시를 비롯한 현내 17시정촌을 조치 구역으로 하여 중점  
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- 주요 변경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첫째, 현내 모든 지역의 음식점 등에 대하여 오후 8시까지로  
영업시간의 단축을 요청합니다. 주류 제공은 조치구역 내에서는  
종일, 기타 구역에서는 오후 7시까지로 자제할 것을 요구합니다.
- 둘째, 대규모 집객시설 등에 대해서는 조치구역 내에서는 오후

8시까지를 영업시간으로 하며, 구역 외에서는 법에 근거하지 않는 권고합니다.

- 이외 낮을 포함한 불요불급의 외출 자제나 출근자 수의 7할 삭감 등의 요청은 지금과 거의 같습니다.
- 특히 연휴 중의 귀성이나 여행 등 다른 도도부현으로의 불요불급 왕래는 계속해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현재, 신규감염자 수가 이제 겨우 감소 경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나, 아직은 방심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.
- 이번에 중점조치로 이행합니다만, 본 현이 안전한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. 이에 실질적으로는 현내 모든 지역에서 긴급사태조치가 연장된 것과 같은 수준으로 강하게 요청합니다.
- 현민 여러분, 사업자 여러분에게는 장기에 걸쳐 불편과 부담을 끼쳐드립니다만, 하루라도 빠른 수습을 위해서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